권영길 성주부군수 부임

권영길(57. 안동 34世 복야공파) 경부도청 대변인이 지난 1월 6일 경북 성주 부군수로 부임했다.

권 부군수는 부임(취임)소감은로 성주 억대 부농 1,020호라는 낙동강의 기적을 만든 성주의 위상을 실감하고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며 성주의 자존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前) 경부도청 대변인을 경험을 잘 활용하여 부군수로써 군수님과 주민 분들과의 가교와 조정과 역활을 충실히 감당하고 도와준 중앙을 잇는 일에 저 부군수를 많이 활용해 주기바라며 올해 역점사업으로 「클린 성주·친환경 농촌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 월항면 클린성주 시범단지 조성, 성주읍 중심지 활성화, 친환경 시범모델 발굴, 참외생육별 맞춤형 액비개발사업, 1·2차 산업단지 성공분양 이어 3차 산업단지 조성 추진, 세종대왕자태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아기별궁 생명관 건립사업 「성주가야산 만들기」,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건립사업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前경북개발공사에 파견나가 보상추진단장으로 일하면서 도청신도시 건설로 고향을 떠나는 이주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한 일이 기억에 가장 남으며 씨의 좌우명으로서는 「일처리에 있어 이왕 할일이면 적극성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로 매주 주말마다 가족들과 등산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권 부군수는 지역민과 공무원에게 하고싶은 말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부족하며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하면 역사가 되며 사람 냄새 나는 성주! 군민이 대접받는 성주! 600여 공직자분들과 성주 군민들 모두 함께 하여 성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권영길 성주 부군수는 영남대 행정대학원 정치외교학사(정치학석사)를 졸업하고 79년 1월 청송

△성주군 부군수 권 영길

군 공무원으로 입문해, 경북도청보사환경국, 농촌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등을 거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청도군의회, 보건복지여성국, 기획조정실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근속 서기관으로 승진해 도청이전추진본부총괄지원과장, 안전행정부지방행정연수원(장기교육) 이어서 경북도청 대변인으로 크게 활동하다가 금반 1월6일자로 성주부군수로 부임(취임)했다. 그간 공직자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내무부장관상, 경북도지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자료정리 : 권오복〉

안동 능우회(陵優會)정기총회

2015년 안동능우회(陵優會) 정기총회가 2월 10일 오후 7시 안동시 평화길 <청운식당>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권윤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相揖禮),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임원개선, 회칙심의,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권혁철 회장은 "임기 1년이 벌써 지나 세월의 빠름을 느꼈다"며 "그 동안 회원 여러분의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 및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에서 제5대 신임회장에 권영택(權榮澤. 36世. 정조공파)을, 부회장 권춘섭, 감사에 권영건을 각각 선임하고 신임회장이 권윤성현 사무국장을 유임시켰다.

권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능우회가 있기까지는 역대 회장들의 노고가 컸으며 회원들도 참여를 잘해온 덕분이니 앞으로 열심히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어느 해보다 손색없도록 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권영택

△ 능우택 권역택 신임회장 인사

신임회장은 안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68년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입사, 38년동안 근무하는 동안 경북본부장, 영주제조창장, 전북본부장, 대구본부장 등을 역임하다 대구에서 정년퇴직 하였다.

이날 능곡회(陵谷會) 권순창 회장과 권기춘 사무국장 그리고 안동농협 권순협 조합장이 신임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하를 하고 능곡회에서 협찬금 20만 주었다.

회의를 마친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으며 정담을 나누다 헤어졌는데 이날 식대는 신임회장이 부담하였다.

능우회는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권문(權問)의 번영과 숭조사상(崇祖思想)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능곡회의 우대회원들이 모인 회(會)이다.

〈보도부장 권영건〉

槐雲칼럼

현대판 사색당파의 만성적 정쟁을 보고

조선조 당쟁의 재현인가 ?

■ 槐雲 權海兆(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작금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 조선시대 사색당파가 무색할 정도로 정쟁(政爭)이 심각하다. 우리의 정치가 개항 이래 근대화되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구시대의 폐습이 잔존하여 진정한 의미의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회고하건대, 조선조의 당쟁은 1575년(선조8년) 이조전랑(吏曹銓郞) 인선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이래, 계속적인 분파를 거듭하여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그리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어 이른바 '사색당파'라는 극한적인 분열과 대립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 때 시작된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정세변화에 따라 당명만 바뀌었을 뿐, 만성적인 정쟁만 계속되고 있다.

조선조 당쟁은 동쪽 건천동에 살고 있는 김효원(金孝元)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서쪽 정릉방(貞陵坊)에 살고 있는 심의겸(沈義謙)을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시작하였다. 동인은 1591년(선조24년) 세자책봉문제로 물러난 서인영수(領袖) 정철(鄭澈)의 처벌수위문제로 남인(온건파 유성룡)과 북인(강경파 정인홍)으로 갈라졌다.

1599년(선조32년) 홍여순(洪汝詢)이 대사헌에 천거되자 남이공(南以恭)이 반대하여 북인은 대북과 소북, 골북, 육북, 중북 등으로 갈라지고, 남인도 정남(강경파)과 탁남(온건파)으로 갈라졌다. 한편 서인도 1638년(숙종9년) 숙종외척 광산김씨 김익훈에 대한 처분문제로 노론(노장파 송시열)과 소론(소장파 신진사류)으로 갈라지고, 1762년(영조 38년) 사도세자 문제로 옹호파인 시파(時派)와 반대파인 벽파(僻派)로 갈라졌다.

조선조의 연속적인 분당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주자학상의 의리론(義理論)과 예론(禮論))에 바탕을 둔 명분논리에 의거하여 자기 정파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상대정파의 부당성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경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정파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해관계, 예컨대 관직임명권이 걸려있는 인사권이나 공론(公論)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쟁권(諫諍權)의 장악에 주안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국리민복 보다는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폐단을 남겨주게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과 호헌동지회 중심의 민주당으로 시작되었다. 자유당은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을 거쳐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민주당도 신민당 신한민주당을 거쳐 1987년 평화민주당(DJ))과 통일민주당(YS)로 갈라졌다. 평민당은 다시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을 거쳐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3당합당 후 1995년 충청도 중심 보수성향의 자유민주연합(JP)이 등장하였으나 한나라당과 합당하였다. 한편 1956년 조봉암이 주도한 진보당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급진 진보세력인 통합진보당(해체)까지 생겼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서 여당의 친박(박근혜), 비박과 제1야당의 친노(노무현), 비노 간의 정쟁을 보면 조선조의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사색당파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한 근래 정치문화도 조선조와 같이 학연, 인맥, 지연 등을 총 동원하여 자당세력을 늘려가며 집권 권력싸움에 혈안이 되고 있다.

우리는 조선조 사색당파의 폐해

를 잘 알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은 역적으로 몰려 숙청(肅淸)되어 귀양 가거나 죽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 조선 통신사로 파견된 정사(正使) 서인 황윤길과 부사(副使) 동인 김성일이 귀국 후 서로 다른 의견을 진술하자 집권세력인 동인은 부사 말을 믿고 일본의 침략 대비도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무조건 타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흠집을 내어 유능한 인물들은 청문회 때문에 주요공직까지 거부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수십 년 간 당명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데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새로운 당이 생기고 기존 정당도 당명을 바꾸고 있다. 그만큼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들의 철학이 부족하고, 지역중심, 보스 중심의 사당(私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날 안보 상황도 임난(壬亂)전, 구한말, 6.25전쟁 과과 비슷하다.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강대국의 패권싸움과 북한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악랄한데 정치인들은 안보문제는 멀리하고 벌서부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준비에 혈안이 되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

역사학사 카(E.H Carr))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 모든 국민까지 대오각성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도자와 정치권은 주자학에서 말한 분별과 질서의 원리를 지향하는 예(禮)와 조화와 통합의 원리를 지향하는 악(樂)을 잘 융합한 올바른 소통으로 우리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권문동상 탐방기

仁山 권영혁씨(78. 34世 추밀공파. 백송한방약방 대표)가 권문동상탐방을 지난 2014년 10월 12일부터 권율장군 동상, 권동진, 권병덕, 권인규, 권종해, 권기수 애국지사와 권태순 장군, 권영우 세명대 설립자 국회의원동상을 탐방해서 권문 후손 및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 위훈과 애국심을 더욱더 함양시키기 위해 이를 권영혁 대표가 편집한 것을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행주산성

제목 : 임진왜란과 행주대첩

주인공 : 조선, 일본, 명나라, 권률장군과 백성, 관군, 승군합 23,000명

시대적 배경 : 1592~1598

공간적 배경 : 조선 덕양산 행주산성

줄거리

조선은 1392년 건국 이후 200년 동안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으나 일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했다(일본의 통일)

명나라는 황하강의 홍수와 몽골반란, 여진 반란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일본이 1592년 조선을 침략했다(임진왜란)

조선군은 전쟁이 준비되어있지 않아 계속 패했고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조선 수군이 승리하고 의병이 모집되어 조선군이 정비되어 반격을 시작했었다.

명나라 원군을 보내 평양탈환에

△ 권영혁 백송한약방사장이(2014.10.12)행주산성에 있는 권율 장군 동상을 탐방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는 성공했지만 고양 벽제에서 일본군이 패하여 개성으로 물러났다.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행주대첩)

壬辰倭亂과 幸州大捷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 貞 澤 忠莊祠 祭奠委員

幸州大捷의 境遇와 意義

1.幸州싸움 以前의 戰鬪槪況

일본이 조선을 침입할 당시 豊臣秀吉은 나고야(各護屋)에서 護軍을 지휘할 계획을 세웠으며, 侵掠軍을 9番隊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이때 각대를 지휘한 주장과 병력은 다음과 같다.

제1번대는 고니지(小西行長)로 병력1만8천700명, 제2번대는 주장 가토(加蔬淸正)로 병력2만2천8백명, 제3번대는 주장 구로다(黑田長政)로 병력1만4천명, 제4번대는 주장 모리(手利吉成) 시마즈(鳥津義弘)으로 병력1만4천명, 제5번대는 주장후쿠시마(福島正則)로 병력 2만5천명, 제6번대는 주장 고바야가와(小草川降景)로 병력1만5천명, 제7번대는 주장 모리(手利輝元)로 병력3만 명 제8번대는 주장 우키타(宇喜多秀家)로 병력1만명, 제9번대는 주장하시바(羽啓秀勝)로 병력1만5천5백명으로 각기 구성 되었다.

위의 병력 15만 8천 700백명은 육군의 출정한 정규병력이고, 구키(九鬼嘉凌), 도토(勝堂高虎)등이 인솔한 수군 9천명이 승선하여 해전에 대비하였고, 구니베(宮部長熙)등이 이끄는 1만2천명이 전후하여 바다를 건너 후방 방비에 임하게 된다. 이밖에도 하야가와(草川長政) 등이 부산에 침입하여 부대의 선쌍을 관리하는 등 정규전투병력 외에도 많은 병력이 출동하여 조선을 침입한 전체병력은 20여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행주산성 충장사

명이나 되었다. 일본이 침입할 당시의 병력은 30여만 명으로 출정병력을 제외한 군대는 各義屋에 약10만 명을 주둔 시키고3만 명으로 경도를 수비케 하였다. 조선을 가장 먼저 침입한 왜군은 고니시가 이끄는 제1번대 였다.

고니시가1592년 4월14일 (음력) 저녁 무렵 釜山鎭을 침범하자 僉事 鄭撥은 사력을 다하여 싸워으나 증과부족으로 패하여 군민과 함께 전사하였다. 왜군은 다음날 일찍이 동래부를 침범하였는데 부사 송상현 또한 전사하고 성안에 있던 군민이 몰사하였다. 고니시의 부대는 이후거의 조선관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중로를 택하여 상주에 이르렀다.

이때 순변사 李溢이 상주를 지키고 있다가 고니시의 군과일전을 각오하였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여 단신으로 탈출하였다.

한편 가토가 이끄는 제2번대는 대마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제 1번대가 부산상육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19일 부산에 상륙하여 좌로를 택하여 울산을 함락하고 문경으로 빠져 중로군과 합하여 충주로 향했으며, 제 4번대는 김해에서 제3번대와 함께 추풍령 방면으로 침입 하였으며 제5번대는 4번대의 뒤를 따라 부산에 상륙하여 북침하였다.

제6번대와 제 7번대는 후방을 지키며 북상하였고 제8번대는 5월초에 부산에 상륙하여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서울로 향하여 북상하였으며 제9번대는 4월24일에 대마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침략을 대기 하고 있었다.

왜군이 대거 침입했다는 변보가 중앙에 전달된 것은 왜란이 일어난지 4일 째 되는 날이었다. 급보를 접한 정부는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익을 순변사로 삼아 상주을 지키게 하고 신립을 도순변사로 삼아 새재를 지키는 등방비책을 서둘렀으나 적의 대군과 맞서 싸울 우리관군은 소수에 불과했다.

고니시의 제1번대가 4월26일 세재를 넘어 다음날 충주에 이르매, 8천여 명의 장졸을 이끌고 탄금대의 금수진을 치고 있던 신립은 한판 싸움을 각오하고 있었으나 삼면에서 포위망을 좁히면서 조총을 쏘아대는 왜군을 보자 급한 나머지 신립단기로 두어 차례 적진에 돌진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패하여 達川江에 투신 자결하였으며 전군이 함몰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경제단신

△포스코는 지난 29일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5조 984억 원, 영업ㅇ익 3조 213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2%, 7.3%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지난 5일 권오준 포스코회장이 20여년전 이건희 삼성회장의 '신경영'을 본떠 '초일류 경영'을 선언하며 위기를 디딤돌 삼아 초일류기업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아일보((2015.1.30. B4면 머니투데이(2015.2.6.12면〉

花山萬世榮

안동권문은

만세토록

번영하리

• 동정

▲**권오준 포스코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그룹전체 투자비로 4조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행정 권선주)**는 지난 9일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223명에게 장학금 4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16일 권순찬 기획검사국선임국장을 보험담당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9일 신임상임이사에 권인원 前 금융감독원부원장보를 선임했다.

▲**권오갑(68세) 한국기술경영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제11회 일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경득 한국자치학회장**은 지난 5~6일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트호텔에서 '주민행복·지역발전 그리고 자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권영민 단국대 석좌교수(서울대 명예교수)**가 일제강점기의 계급문학 운동이 민족사회 운동을검토한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서울대출판문화원)를 최근(1월 26일) 출간했다.

▲**지난 2월 22일 권정훈(46. 대구연수원 24기)**부산지검 형사 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